

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

<26.02.18, 한-EU연구협력센터>

○ “유럽의 경쟁력 강화, 그 어느 때보다 시급”(2.13)

- 심화되는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정상들·산업계 대표·정책 결정자들이 뜻을 모으며 유럽의 경쟁력 강화가 핵심 의제로 부상
-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주 유럽의회 본회의, 앤트워프 유럽 산업 정상회의, 그리고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향후 조치를 제시하며 ‘하나의 유럽, 하나의 시장’ 로드맵을 2026년 3월 제시할 예정임을 밝힘
- 폰테어라이엔은 경쟁력 강화 실현을 위해 제28번째 체제, 행정 절차 감축, 단일시장 내 조화로운 규정, 국가 차원의 골드플레이팅(EU 기준을 초과하는 규제) 지양 등 심층적인 규제 정비와 함께 합리적·안정적 에너지의 중요성과 청정 전환 가속화의 필요성을 언급

○ 꾸준한 증가로 여성 과학자·엔지니어 790만 명 도달(2.11)

- 유럽통계청(Eurostat) 자료에 따르면 EU 내 여성 과학자·엔지니어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옴(’08년 340만명→’14년 520만명→’24년 790만명)
- ’24년의 모든 경제부문에서 여성은 과학자·엔지니어 인력의 40.5%를 차지
- EU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국가는 라트비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이상 50% 내외) 등, 가장 낮은 비율은 핀란드, 헝가리,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독일(이상 30%대) 순으로 분석

○ 디지털 유럽, “AI 옴니버스 서두르다 구조개혁 놓칠 수 있다” 경고(2.16)

- 디지털 유럽은 입장문을 통해 유럽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AI법 일부 규정 적용 지연으로 부족하며, AI 규정을 기존 산업 규정과 맞추는 논의와 수정이 필요하고, 기업 경쟁력을 위해 복잡한 데이터 공유 의무와 까다로운 보고 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고 촉구

○ (기타) ▲네덜란드 대학들, 학생 수 감소에 대응 촉구(2.13) ▲EU 집행위, 드론 위협 대응을 위한 행동계획 발표(2.11) ▲청정·공정한 에너지 전환 신규 연구, 신기술 평가 도구 제시(2.17)